禪 · 불교문화 체험 콜라보 여행

여래사 '선지식 친견 및 문화답사'
6월26일, 표충사 등 3대사찰 방문

선문화 선법문 통해 禪 이해 도와
무명사찰 찾아 잊힌 불교문화 조명
코로나 힘겨움 극복 힐링의 의미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선지식을 친견하고 불교문화를 탐방하는 답사가 마련된다. 부산 여래사(주지 종우)는 6월 26일 '선지식 친견 및 문화답사'를 개최한다. 오전 8시 20분에 부산 YMCA를 출발해 밀양 표충사와 무봉사, 밀양 용궁사를 답사한다. 동참금은 5만 원이며, 접수는 선착순 40명이다.

'선지식 친견 및 문화답사'는 일반 시민들과 신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선문화 체험을 제공하며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선(禪)'의 좀 더 쉬운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유명 사찰 뿐 아니라 널리 알려지지 않는 사찰을 안내하고 그 안에 있는 불교문화의 가치를 찾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그동안 만나지 못한 인연들과의 만남을 통한 힐링의 장이기도 하다.

△밀양 표충사는 통도사 말사이며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사명대사의 충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표충사당이 있는 곳이다. 아울러 현대 한국불교의 선사이자 '새벽 산봉우리', '절구통 수좌'라 불린 효봉 선사가 정진하고 입적한 곳이다. 표충사는 현재 재가불자들이 바른 선수행을 할 수 있는 선회(禪會)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선문화 체험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이며, 수좌 스님들을 위한 선방을 운영해 1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선 수행 정진 중이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2019년 동안거 때 천막 수행을 했던 '천막법당 상월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천막법당에서 수행한 아홉 스님들은 "천막법당 상월선원에 들기 전에 천명한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발원을 세우고 수행했다. 이번 답사에서 참가자들은 표충사 선방에서 수행하고 주지 진각 스님의 선법문을 듣는다.

여래사는 이에 앞서 6월 9일 3층 관음전에서 영화 '아홉 스님'을 상영하고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영화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두 차례 상영한다.

△무봉사는 통도사 말사이며 신라 773년(혜공왕 9년)에 법조 스님이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법조 스님이 영남루 자리에 있었던 영남사를 순례하던 중 큰 봉황새가 현재의 무봉사 자리에 날아와 앉아, 상서로운 성지라 생각하고 창건했다는 설화가 있다. 무봉사 대웅전에는 보물 제493호로 지정된 무봉사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우리나라 3대 명루로 손꼽히는 밀양시 영남루와 바로 인접해 있고 사찰 뒤에는 사명대사 동상이 있다.

△밀양 용궁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밀양 중심부에 세워진 포교당이다. 일제강점기 도심 포교당으로 민족의 수난을 함께 이겨낸 사찰이다. 현재 도심포교를 위해 사명연꽃문화제, 효 잔치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초대하고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여래사는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순례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기를 바란다"며 "불교문화와 선에 담긴 불교의 정수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466-4080


부산 여래사가 2010년 진행한 봉화 청량사 답사 모습.

화엄승가회, 창립 7주년 기념법회

대학생 불교동아리 장학금 등 총 1200만 원 전달

부산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5월 28일 부산불교교육대학 대강당에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회장 자인 스님과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 부산불교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관계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에서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발전 기금, 장애인 포교단체 후원금과 부산지역 8개 대학 불교동아리에 장학금 등 총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각 대학 지도 대표에게 모범신행상을 수여했다.

회장 자인 스님은 "모든 회원들의 노력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7년 동안 승가회의 나눔과 공덕이 더욱 빛나며 가치 있는 그 활동이 모여 불국토의 기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스님들이 2015년 발족한 승가나눔 공동체이다. 창립 이후 인재불사에 앞장서 왔으며 자살 및 교통사고 방지 캠페인, 연탄나눔 등 자비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제3차 천일화엄대법회 입재

1000일 동안 53선지식 초청법회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5월 30일 경내 보제루에서 '제3차 천일화엄대법회 및 53선지식 초청법회'를 입재했다.

입재법회에는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주지 경선 스님의 입재법문으로 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주지 경선 스님은 "화엄경은 한마디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려주는 내용이다.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며 "1000일 동안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화엄의 세계가 전하는 지혜의 세계에서 성장하고 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어사는 지난 4월 27일 '제2차 천일화엄대법회 및 53선지식 초청법회'를 회향했다.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 중 하나이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가 화엄도량임을 대중에게 강조하고 화엄법회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범어사 동산장학회가 지난 5월 19일 동명대에서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산장학회는 동산 대종사의 한국불교 정화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7년에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6월 이-음 콘서트 개최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음악회 등
매주 수요일 쿠무다 콘서트홀서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이하 쿠무다)가 6월 수요음악회 이-음 콘서트를 개최한다.

쿠무다는 연주자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관객과 연주자의 연결을 의미하는 이-음 콘서트를 기획하고 매월 새로운 주제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6월에 열리는 이-음 콘서트는 △8일 열리는 첼로와 기타의 콜라보 '듀오 뉘아쥬', △15일 열리는 피아노와 베이스의 연주 '피주베주', △6월 22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기원음악회', △6월 29일 열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쉘로 앤 컴퍼니'이다.

특히, 22일 열리는 평화기원음악회는 체코 브르노에 난민으로 체류 중인 첼리스 톨마쵸바 옥사나를 초청해 진행한다. 톨마쵸파 옥사나는 1974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프로코피에프 음악원을 졸업하고 동시에 1988년부터 2018년까지 필하모니 첼로 수석 및 유럽 비발디와 바흐 전문 연주자로 활동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체코로 피난한 첼리스트다. 2008년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2022년 평화기원음악회 문경문화회관과 부산문화회관 연주에 솔리스트로 초청받았다. 쿠무다 평화음악회 협연은 황미리 플루티스트, 정아름 피아니스트가 출연한다.



이-음 콘서트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며, 네이버 티켓으로 사전 예매 가능하다. 공연 티켓은 1만 원이다. 051)702-13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련 부산, 제38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

대상, 추현경(그리기) · 김소윤(글짓기) 수상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지혜롭게 성장하길…"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회장 효산)가 5월 26일 부산 여래선원에서 '제38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련 부산지부 회장 효산 스님과 이사 능후 스님, 범어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벽해 스님, 성보영 쿠무다에스브이 대표, 임한규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단장, 김옥희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등 내빈 및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삼귀의 및 반야심경 △총평 및 축사 △시상식 △수상작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그리기 부문 추현경(구서초 6)어린이와 글짓기 부문 김소윤(재송초 5)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으며, 참가자 457명 가운데 총 71명이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과 상품을 받았다. 단체상은 옥련유치원이 수상했다.



동련 부산지부 회장 효산 스님은 "여러분의 손길로 담은 부처님의 세상은 그 어느 작품보다 아름답고 소중했다"며 "불심이 담긴 작품들처럼 밝게 성장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안전하게 뛰어놀며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사 능후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불교문화를 통해 바르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문사, 소외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가 5월 30일 남해군 이동면 면사무소에서 소외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용문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으로 마련됐으며, 총 1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기탁 지정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어린이 5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주지 승원 스님은 "신도분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비나눔 실천행으로 지역사회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해 용문사 신도들은 코로나19 극복 기부금과 적십자 활동지원, 소외 계층 후원금, 희망 나눔 특별성금 등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